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주제 발표 및 사전행사 개최

본행사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 하나하나 탈출한다 (One Escape at a Time)
본행사 기간	2020년 9월 8일 (화) - 11월 22일 (일)
사전행사	영상 상영회 및 작가·큐레이터와의 대화 등
사전행사 기간	2019년 12월 6일 (금) - 8일 (일)
사전행사 장소	서울극장 5관 (서울시 종로구)

핵심 개요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내년 비엔날레의 주제로 《하나하나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 발표
- “하나하나 탈출한다”라는 주제는 대중 미디어에 나타나는 현실도피적 경향이 역으로 사회 변화를 향한 원동력 역할을 하는 전환에 주목
- 2020년 본행사의 주제를 사전에 선보이기 위한 행사로서, 영상작품 14편을 선보이는 극장상영회를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서울극장에서 개최
- 매일 상영회 후에는 작가 및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이어 진행하여, 기획 과정과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관객과 공유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백지숙)은 내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준비와 연계해, 예술감독 융 마(Yung Ma)가 기획한 극장상영회를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종로구 서울극장에서 개최한다.

- 본 극장상영회는 내년 비엔날레의 주제이자 제목인 《하나하나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를 관객과 미리 나누면서 주제를 심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주제와 공명하는 국내외 작가 12명의 영상작품 14편을 선정해 상영하는 한편, 매일 상영회 종료 후에는 내년 비엔날레 기획을 구체화하는 작가 및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 내년 비엔날레의 제목 ‘하나하나 탈출한다’는 판타지와 히어로 영화 등과 같이, 오늘날 대중 미디어에서 크게 유행하는 현실도피적 경향에서 착안했다. 일반적으로 도피주의(escapism)에는 삶의 실제 문제로부터 도망치려 한다는 부정적인 함의가 있다. 하지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은 도피주의를 통해, 역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한다. 도피주의의 상상력은 도리어, 탈출할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각종 사회·정치·문화적 주제들을 반추하고 탐색하며, 나아가 사회 변화를 위한 원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 극장상영회에 포함된 14편의 작품들은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한 작가들의 생각과 응답을 보여준다. 작품들은 동시대 경제 상황, 가족 및 젠더 개념, 정체성·기억·역사의 구성 등, 첨예한 사회적 문제를 다양한 목소리와 시선을 통해 전한다. 상영작들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현실과 동떨어진 듯하지만,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여러 다양한 현실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으로의 탈출’은 다른 이들의 경험을 비추어 우리 스스로의 세계관을 반성할 가능성을 제시해줄 것이다.

- 극장상영회의 참여 작가 및 감독은 무니라 알 카디리(Monira AL QADIRI), 리처드 벨(Richard BELL), 요한나 빌링(Johanna BILLING, ※ MoMA PS1 개인전, 도큐멘타 12 참가), 폴린 부드리 / 레나테 로렌츠(Pauline BOUDRY / Renate LORENZ, ※ 2019년 베니스비엔날레 스위스관 작가), 미네르바 쿠에바스(Minerva CUEVAS, ※ 영국 화이트채플갤러리 및 네덜란드 반아베미술관 개인전), DIS(※ 2016년 베를린 비엔날레 감독), 쉬 쩌위(HSU Che-Yu), 강상우(KANG Sangwoo), 스파이크 존즈(Spike JONZE), 밍 웡(Ming WONG, ※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싱가포르관 작가), 치카코 야마시로(Chikako YAMASHIRO), 토비아스 칠로니(Tobias ZIELONY) 등 국내외 12명이다.

- 행사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비엔날레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 한편, 내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은 2020년 9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을 비롯해 서울시 전역의 미술공간과 공공장소에 펼쳐질 예정이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사전행사 상세 정보

장 소: 서울극장 5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6층)

상영시간표

일자	시간	상영작
12월 6일(금) (19:00-21:00)	19:00-20:00	DIS, <절호의 위기>, 2019, 3분 38초
		미네르바 쿠에베스, <해적과 영웅>, 2006; <상상의 경제 - 리베르다데, 임페리오>, 2006
		무니라 알 카디리, <SOAP>, 2014, 8분
		토비아스 칠로니, <마스키로프카>, 2017, 9분
		치카코 야마시로, <정육점 여자>, 2016, 21분 15초
	20:00-21:00	아티스트 토크: 미네르바 쿠에바스 x 용 마 예술감독
12월 7일(토) (14:00-16:30)	14:00-15:00	무니라 알 카디리, <우주선>, 2017, 16분
		쉬 쩌위, <유일한 사본>, 2019, 22분
		요한나 빌링, <마법 같은 세상>, 2005, 12분 39초
		밍 웅, <블러디 메리들 - 남쪽 바다의 노래>, 2018, 5분 28초
		리처드 벨, <브로큰 잉글리쉬>, 2009, 11분 30초
	15:00-16:30	비엔날레 토크: 용 마 예술감독 x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12월 8일(일) (14:00-18:30)	14:00-15:00	강상우, <클린 미>, 2014, 21분 35초
		폴린 부드리 / 레나테 로렌츠, <침묵>, 2016, 7분 45초
		폴린 부드리 / 레나테 로렌츠, <뒤로 가기>, 2019, 20분 35초
	15:00-16:00	아티스트 토크: 강상우 & 이지원 큐레이터
	16:00-16:20	휴식
	16:20-18:30	스파이크 존즈, <그녀>, 2013, 126분

* 토크 프로그램은 순차통역 제공

* 서울극장 오시는 길: http://seoulcinema.com/theater/3300_locationinfo.php

* 극장상영회 사전 신청

사전신청 접수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서울시립미술관 웹사이트의 공지사항 페이지 (<https://sema.seoul.go.kr/nj/nws/getNwsList#list/1>) 및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페이스북 (facebook.com/mediacityseoul/)을 통해 공지될 예정

* 극장상영회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극장상영회 상영작 이미지



폴린 부드리 / 레나테 로렌츠, <침묵>, 2016, 영상 스틸.



밍 웅, <블러디 메리들 - 남쪽 바다의 노래>, 2018, 영상 스틸.



토비아스 칠로니, <마스키로프카>, 2017, 영상 스틸.



강상우, <클린 미>, 2014, 영상 스틸.



스파이크 존즈, <그녀>, 2013, 영상 스틸.



요한나 빌링, <마법 같은 세상>, 2005, 영상 스틸.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개

* (구)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동시대 미술 행사로서, 예술과 미디어와 도시 사이의 연결 고리를 탐색한다.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시가 주최하며, 예술 창작에 새로운 변곡점을 제공하는 한편 현대 도시의 삶에 대한 관점을 다각화하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2000년에 열린 1회 이후로 지난 20년 간 한국 예술가를 해외에 알리고, 국제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예술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확장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예술감독 소개: 융 마(Yung Ma)



동시대 미술 및 무빙 이미지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기관에서 지역적, 세계적 경험을 쌓았다. 현재 프랑스 파리 퐁피두 센터의 동시대미술 및 전망 분과의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홍콩의 새로운 시각문화 미술관인 M+의 설립 초기부터 주요 큐레토리얼 팀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베니스 비엔날레의 홍콩 파빌리온을 두 차례 공동 기획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지리적 맥락이 혼재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수의 국제적인 출판물 및 전시 도록에 참여했으며, 퐁피두 센터에서 《HX: a solo exhibition by Cao Fei》(2019), 《Prospectif Cinema》(2016-)를, 홍콩 M+에서 《M+ Screeeings》(2016-), 《Mobile M+: Live Art》(2015), 《Mobile M+: Moving Images》(2015) and 《Mobile M+: Yau Ma Tei》(2012)를 포함한 다수의 전시 및 공공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SeMA

Seoul Museum of Art

Press Release Ver.1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기본 정보

주 최 서울시립미술관

행사장소 서울극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6층

관람료 무료

홍보문의 김채하 학예연구사 chaeha@seoul.go.kr / 02-2124-8928

관련 이미지 다운로드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접속 (<http://sema.webhard.co.kr>)

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로그인 후 이미지 다운로드